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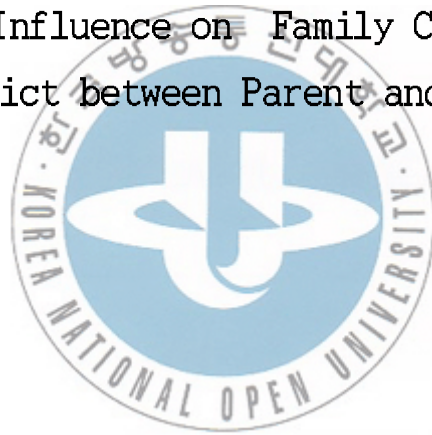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스마트폰이 가족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중심으로 -

Smartphone Influence on Family Communication:
Conflict between Parent and Child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김 정 화

2 0 1 4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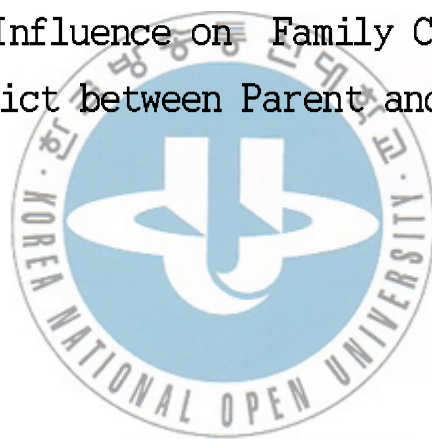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스마트폰이 가족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중심으로 -

Smartphone Influence on Family Communication:
Conflict between Parent and Child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김 정 화

2014년

스마트폰이 가족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중심으로 -

Smartphone Influence on Family Communication:
Conflict between Parent and Child

지도교수 김 영 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김 정 화

2014년 6월

김 정 화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4년 6월

논 문 요 약

스마트폰이 가족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중심으로 -

김 정 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 상 문 화 콘 텐 츠 학 과

(지도교수 김 영 임)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된 연구가 많아졌지만 대부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스마트폰 중독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 소통 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 부모와 자녀의 소통에서 스마트폰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표적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10개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은 부모 자녀의 관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갈등 해소를 스마트폰을 통해 시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가족 간 면대면 대화 시간은 줄었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도 발견되었고, 스마트폰 이용 방식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많은 시

간을 보내는 자녀일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과 화해가 지속된 반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간 면대면 대화 시간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한 가족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다른 유형의 소통방식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족커뮤니케이션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 논의와 해결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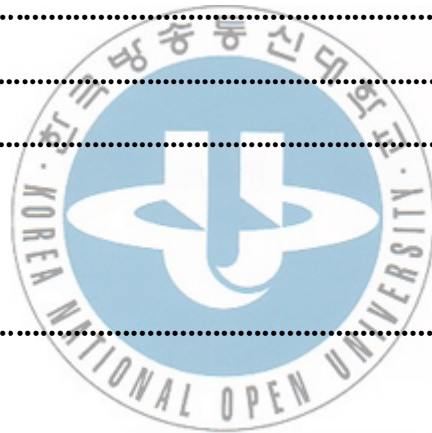
키워드 : 스마트폰, 가족 커뮤니케이션, 가족갈등, 화해, 의사소통, 대화 단절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5
제2장 이론적 논의	6
제1절 스마트폰의 개념	6
1. 스마트폰의 정의	6
2. 스마트폰의 특성	8
3. 스마트폰 이용 실태	11
제2절 스마트폰의 사회적 영향	16
1. 긍정적인 영향	16
2. 부정적인 영향	20
제3절 가족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27
1. 스마트폰과 가족커뮤니케이션의 관계	27
2. 스마트폰과 가족커뮤니케이션의 갈등	31
제3장 연구방법	36
제1절 조사대상	36
제2절 분석방법	37
제4장 연구결과	39
제1절 스마트폰이 가족소통에 미치는 영향	39
1. 대화단절	39

2. 게임중독	41
3. 건강악화	42
4. 난폭성	43
제2절 스마트폰이 가족소통에 미치는 의미와 역할	46
1. 정서적 교류	46
2. 가족관계 형성	48
제3절 스마트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52
1. 소통의 매체	52
2. 면대면 대화의 감소	53
3.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이해	54
 제5장 결 론	 57
제1절 요약 및 결론	5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61
 참고문헌	 63
 (부록) 질문지	 69
 ABSTRACT	 73



- 표 목 차 -

〈표 1〉 스마트폰의 정의	7
〈표 2〉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11
〈표 3〉 세대별 스마트폰 보유 현황	12
〈표 4〉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성	37



- 그림 목차 -

<그림 1>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	13
<그림 2> 스마트폰 이용 동기	13
<그림 3>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이용 목적	14
<그림 4> 스마트폰을 통한 일평균 이용 시간	15
<그림 5> 스마트폰 이용 후 이용 인식	17
<그림 6> 스마트폰 이용 과몰입 관련 행동 및 인식	21
<그림 7>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 콘텐츠 접촉 비율	2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1세기 우리사회는 급격한 디지털 기술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화 기기 중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능이 구현된 스마트폰은 개인의 삶과 사회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과 집단 간의 실시간 소통은 물론이고, 사회 및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되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¹⁾는 지인 및 친구들과의 관계유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 되었고, 이에 더해, 최근 선거캠페인 전략이나, 정치인의 이미지 구축, 대국민과의 의사소통 등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최근 10명 중 9명(93.8%)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조사됐고, SNS 이용자 10명 중 9명(94.9%)는 페이스북 등의 ‘프로필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투데이, 트위터 등의 ‘마이크로 블로그(25.5%)’, ‘블로그(23.1%)’, ‘미니홈피(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74.1%의 사용자들이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 SNS가 “중요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스마트폰은 SNS의 중심 이용 매체이면서, 기본 통화 및 과거 전자수첩의 기능 등을 모두 갖춘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사람들의 일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에 보급되었던 휴대전화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기술과 최신 IT기술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스마트폰에 융합시켰다. 예전의 가족들의 형태를 보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문화라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문화로 변하고 있다. 또한 카

1)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등을 포함함.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등 인스턴트 메신저는 포함하지 않음.

메라, MP3 플레이어, 영화관람, 전자책의 활용뿐만 아니라, 네비게이션과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²⁾을 사용해 길 찾기에도 활용하고 있다. PC에서만 가능했던 고화질의 게임도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3,832만으로 보고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4~6학년)·중·고교생 1만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1.5%로 지난 2012년 36.2%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일반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청소년은 53.9%로 더 많았으나 지난해 10%로 급격히 줄었다. 그 중 초등학교 4~6학년생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72.2%에 달했다. 즉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용용도는 주로 채팅 및 메신저, 전화 및 문자, 음악 및 MP3, 정보검색, 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기존의 인터넷 중독 및 휴대전화 중독의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인터넷 및 과거 휴대전화에 비교할 때, 이용의 “편리성, 즉시성, 휴대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중독의 심각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³⁾ 이 외에도, 스마트폰이 개인 스마트 기기라는 측면에서 어른들의 모니터링 및 통제가 어려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사이트, 또 자살사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사회악적 콘텐츠의 이용 등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인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의 영향력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개인 스마트 기기인 스

2)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다.

3)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중독 문제는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인터넷 중독의 정의를 빌리거나 스마트폰을 휴대전화의 진화된 형태로 보고 기존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강희양, 손정락, 2009; 정국정보화진흥원, 2011;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강희양, 박창호, 2012).

마트폰의 이용 및 중독 성향에 따라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외의 부정적 반감을 조성하는 가족 외의 커뮤니티 활동 증가로 인해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가정”이라는 사회적 기본 단위는 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활동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안정적인 집합체이고, 정신적/육체적 성숙을 제공해주는 기본 구성체이다. 만약 청소년들이 이 기본 단위인 가족과의 생활에 있어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의 방향성을 반드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관련 분야의 연구들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보급이 본격화 된지 불과 3~4년 정도에 불과한 이유로 대부분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 요인(이해경, 2008/2009; 박남수, 2011),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김혜주, 2012; 장혜진, 2002; 장성화, 오은정, 2009),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명숙, 2005; 조일주, 2009; 우형진, 2007)” 등으로 스마트폰 중독 관한 연구들로만 집중되어 있다. 즉, 스마트폰 이용급증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변화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시도하는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연구를 통해 가족커뮤니케이션 변화와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가족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고, 특히 개인화된 스마트폰 이용의 경우 더 큰 연관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홀해 지도록 하고,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가족 의사소통에 차이를 만들고, 인터넷 비중독군은 중독군보다 개방형 의사소통을, 인터넷 중독군은 비중독군보다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다(이명숙, 2005; 김기리, 이선정, 신호식, 2008).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성은 낮게 나타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한미영, 2006). 이는 가족 간 의사소통과 미디어의 이용이 상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4) 가족관련 문제점 외에도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지각하거나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수업시간에 집중도도 낮으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정숙, 2004;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답하며, 우울, 외로움을 느끼고, 휴대전화 중독 수준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있다(장혜진, 2002; 이재연, 2013). 또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학교성적 하락과 집중력 저하 등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우울, 불안 등을 동반하여 산만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교생활의 부정적응으로 연결된다(장성화, 오은정, 2009; 김혜주, 2012). 즉, 휴대전화가 지니는 속성에 더해, 스마트 기능들을 접목한 스마트폰의 경우 이상의 중독에 따른 학교생활 부정적응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과 연결될 가능성을 지닌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더욱 더 많은 디지털 매체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수많은 기능들을 융합/압축시킨 스마트폰에 더 몰입하게 하고, 더 집중하게 하면서 “중독, 의존”에 더해 항시적 “휴대”라는 특성으로 연결된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미디어 이론의 “편재성⁵⁾”이 그대로 담겨 있는 스마트 기기로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가족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화 및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매체이용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갈수록 위협받아 최근에는 학교폭력, 자살, 집단 따돌림, 게임 중독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현상들이 뉴미디어 이용과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가족 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위해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10개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법을 실시하고, 가족 구성원 가운데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깊이 있는 대화들이 이뤄지고 있는 관계로 인터뷰는 어머

5) 노엘레-노이만에 의하면, 사람들은 개인적 영역 밖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알기 위해 또는 의견의 기후를 알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매스 미디어에 의존한다. 오늘날 매스 미디어는 일반 대중의 지배적인 공공 정보원이다.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여(편재성) 대중의 눈과 귀로 작용한다. 또한 오늘날의 매스 미디어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독점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협화성), 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유사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누적성).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매스 미디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니와 자녀 위주로 집중되어져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논의해 바람직한 가족커뮤니케이션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 소통 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가정에서 스마트폰이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 부모와 자녀의 소통에서 스마트폰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절에서는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개념과 2절에서는 스마트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 긍정적/부정적 요소 등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미디어와 가족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 스마트폰이 가족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2장에서 다뤘던 1, 2, 3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대상은 부모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의 자녀로 구성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분석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4장은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의 가족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층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본 연구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스마트폰의 개념

1. 스마트폰의 정의

최근 스마트폰을 ‘손 안의 PC’ 라고 표현한다. 스마트폰의 본질적인 의미를 분석하기 전에 ‘손 안의 PC’ 라는 표현을 좀 더 깊게 의미 있게 생각해 본다면 ‘손 안’ 이라는 표현은 손에 들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PC’ 라는 것은 범용 운영체제 OS(Operating System)를 탑재하고 있어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표1>에서 살펴본다면, 스마트폰은 “일반 PC 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 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 으로 ‘손 안의 PC’ 라 불린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또한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PDA⁶⁾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으로 일반 휴대전화에 인터넷 접속, 일정관리, 팩스 등의 부가기능을 결합한 제품”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배재권, 정화민, 2008). 즉 스마트폰이란 “인터넷과 통신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서 기존의 휴대전화 기능에 전용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높은 수준의 UI(User Interface)⁷⁾ 확장성을 갖춘, 다양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이 가능한 이동형 멀티미디어” 로 정의 내릴 수 있다(김

6) Personal Digital Assistant phone의 약자,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기능이 추가된 휴대폰. 일반 휴대폰과는 달리 PDA폰은 고성능 CPU와 상용 OS를 갖추고 있어 갖가지 휴대단말기 기능과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능, 그리고 보다 향상된 휴대폰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PDA폰에서는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편집도 가능하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기에 용이한 모바일 PC 플랫폼을 제공한다.

7)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는 사람(사용자)과 사물 또는 시스템, 특히 기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뜻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이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이다

대근, 태지호, 2010).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라우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휴대전화”라고 정의 하였다(황주성, 이재현, 이나경, 2010). “스마트폰은 palm OS나 Window CE등 기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종전과는 다르게 유연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할 수 있는 고기능판 다기능 휴대전화”라고 정의하고(한국정보통신산업, 2004), “스마트폰은 핸드폰에 PC를 결합한 형태의 지능형 복잡 단말기”라고 말한다(임창영, 2004).

〈표 1〉 스마트폰의 정의

연 구 자	정 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4)	스마트폰은 palm OS나 Window CE등 기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종전과는 다르게 유연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할 수 있는 고기능판 다기능 휴대전화
임창영(2004)	스마트폰은 핸드폰에 PC를 결합한 형태의 지능형 복잡 단말기
Cheng,J., Wong, S.H.Y., Yang, H., Lu, S(2007)	메시지나 음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핸드폰의 기능에 PDA와 같은 초소형 컴퓨터 그리고 제3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능을 하나로 제공하는 편리성은 다양한 사용자 층에게 매력적인 디바이스로 인식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휴대폰
Yangil, P., Jengchung V . Chen(2007)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대중적인 PDA와 핸드폰의 조합
Laudon, K.C., Laudon, J.P(2008)	스마트폰은 이메일 메신저, 무선으로 통한 인터넷, 음성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카메라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핸드폰
배재권. 정화민 (2008)	휴대전화와 PDA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으로 일반 휴대전화에 인터넷 접속, 일정관리, 팩스, 송수신 등의 부가기능을 결합한 제품
한국인터넷진흥원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이메일, 웹브라우징, 멀티미디어 메시지 등

(2009)	무선 인터넷 기능과 일정관리 등 컴퓨터 기능이 보장된 휴대전화
김기영, 강동호(2009)	PC와 유사한 모바일 단말기 범용 운영체제가 내장된 휴대폰
오수원(2009)	음성통화와 무선인터넷 등을 기본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멀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된 사용자 지향적인 모바일 PC 플랫폼
김대근, 태지호(2010)	인터넷과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서 기존의 휴대전화 기능에 전용 운영체제인 OS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UI 확정성을 갖추고 다양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이 가능한 이동형 멀티미디어
황주성, 이재현, 이나경 (2010)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라우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휴대전화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설치, 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

이상의 정의들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은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이메일, 웹브라우징, 멀티미디어 메시지 등 무선 인터넷 기능과 일정관리 등의 컴퓨터 기능이 보장된 고급형 휴대 단말기”이다. 일반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 동작시킬 수 있는 이동형 멀티미디어를 의미한다.

2. 스마트폰의 특성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이동성에 PC의 컴퓨팅 파워와 인터넷 연결성,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의 기능성을 융합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특성을 이동성, 연결성, 개인화, 혼종성, 다목적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공영일, 2010; 백준상 외, 2009; 신소영, 2010; 황주성, 이나경,

2010).

첫째, 이동성은 기기를 고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황주성, 이나경, 2010). 이 특성은 기존의 휴대전화와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에는 있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없었던 기능이다. 스마트폰은 복합적 시간 이용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작업속도의 제고와 시간절약을 추구하면서 이동성을 확대시킨다. 스마트폰은 휴대용 PC라는 점에서도 이동성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공영일, 2010). 휴대전화와 PC가 결합된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기에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설치하고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결성은 통신 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 정보, 인간, 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특징은 기존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는 가능했으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불가능했던 기능이다. 모바일 인터넷은 사회적 연결성과 정보적 연결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더욱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황주성, 이나경, 2010).

스마트폰을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인터넷이 없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능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공영일, 2010). 스마트폰은 문서와 인터넷 등 PC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키 입력방식을 가지고 있으며(백준삼 외, 2009), 모바일 인터넷은 개인과 개인을 서로 연결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정보를 연결시켜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호작용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속도와 관계가 있다. 즉 스마트폰에는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응성’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다(신소영, 2010).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즉각적인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케줄 관리 등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으로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제한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그 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개인화는 미디어로서의 기기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기기로 이용함을 의미한다(황주성, 이나경, 2010). 개인화는 개인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동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기존의 휴대전화와 모바일 기기에는 있었지만 데스크톱 컴퓨터에는 없었던 부분이다. 한 가구에 한 대의 컴퓨터, 1가구 다(多)컴퓨터, 노트북등 과정을 거쳐 이제는 스마트폰이 컴퓨터의 상당한 부분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기기로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마트폰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오픈 마켓은 개인화를 점점 더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공영일, 2010).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은 전용 디지털 마켓에서 공급하지만 폐쇄적인 형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 있도록 개방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혼종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과 스마트폰을 통한 가상 공간이 융합 또는 중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스마트폰 이전의 기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으로(황주성, 이나경, 2010), 공간제약을 극복한 실재감과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상대방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신소영, 2010).

다섯째, 스마트폰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소셜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성이 있다. 스마트폰은 기기에 탑재된 기계적인 기능 이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로 바뀔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디어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하여 SNS가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의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에 따른 ‘정보의 융합성’과 클라우드가 가능한 컴퓨터에 접근하여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접근성’,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나 편의에 맞춤형된 ‘맞춤성’ 등의 특성은 정보와 소통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다(신소성, 2010).

3. 스마트폰 이용실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3년 7월 기준 35,946,0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참조). 즉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약7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SKT가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KT, LG유플러스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단위: 명)

구분	가입자 수
SKT	17,534,073명
KT	11,028,184명
LGU+	7,383,794명
합 계	35,946,051명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3), 『통계정보 유무선통계 조사 보고서』.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연령별로 20대가 99.2%로 가장 높았으며, 12-19세(97.8%), 30대(98.6%), 40대(95.6%), 50대(89.1%)순의 보유율이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8.3%로 가장 낮았지만 전년에 비해 세대 간 스마트폰 보유 격차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중 10대 청소년들은 97.8%로 이미 10명중 9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세대별 스마트폰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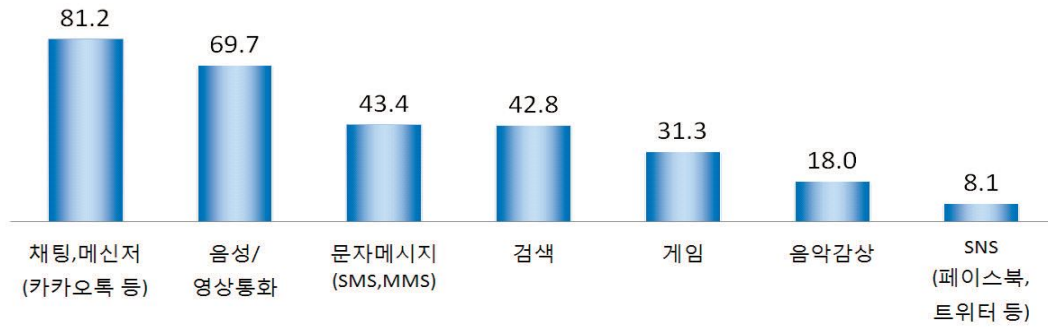
스마트폰 세대별 보유 현황		
연령	10대(12~19)	97.8%
	20대(20~29)	99.2%
	30대(30~39)	98.6%
	40대(40~49)	95.6%
	50대(50~59)	89.1%
	60대(60세 이상)	78.3%
계		95.5%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위와 같이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보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중독현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중재 외에는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독 증상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신체적 건강 문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12년까지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는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와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조사명을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로는 이동전화(스마트폰 포함), 스마트패드 등의 모바일 단말기로 이동통신망(2G/3G), 무선랜, 와이브로, LTE 등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이용자들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시 주로 ‘채팅, 메신저’ (81.2%), ‘음성/영상통화’ (69.7%)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문자메시지’ (43.4%), ‘검색’ (42.8%), ‘게임’ (31.3%)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채팅, 메신저(카카오톡 등)’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반면, 남성은 ‘검색’, ‘게임’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그림 1>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유는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서’ (85.9%)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필요 시 즉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 (79.8%), ‘여유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64.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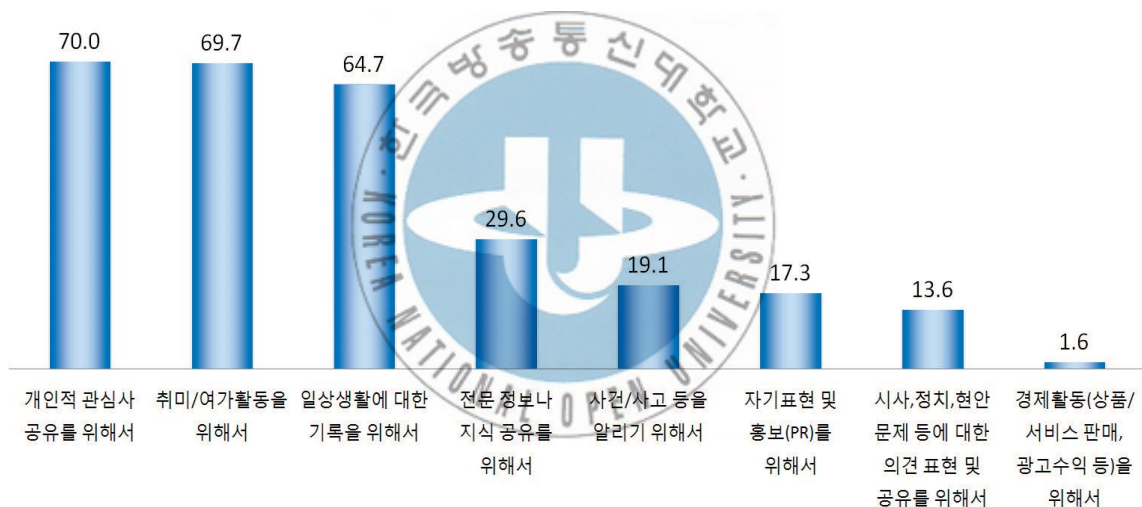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그림 2> 스마트폰 이용 동기

모바일 서비스 중 ‘검색서비스’ 이용률이 9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SNS’ (50.4%), ‘쇼핑’ (36.4%), ‘은행업무’ (33.1%)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나타났다. 그 중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SNS 이용자는 50.4%로 나타났으며 그 중 87.7%가 주 1회 이상 모바일 SNS를 이용한다고 답하였고, ‘하루에도 여러 번’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37.2% 나타났다. SNS의 성별을 구분하여 보면 남성 (51.3%)이 여성(49.4%)보다, 다른 연령보다 20대(79.5%)에서 모바일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이용자의 70.0%는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 SNS를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취미/여가활동을 위해서(69.7%),’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 ‘(64.7%)’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그림 3>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이용 목적

2013년 한국정보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통 서비스 중 10대에서 20대까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약69.6%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30대 이상의 SNS 이용은 53.8%로 나타나 10나 20대와 같이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다.

세대별 일일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10대의 경우 2시간이상~3시간 미만 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심지어는 5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20~40대의 경우 2~5시간, 50대는 1~2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또한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SNS를 포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13분으로 ‘1~2시간 미만’ (35.4%)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3시간 미만’ (29.8%), ‘3시간 이상’ (27.0%), ‘1시간 미만’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대 자녀들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그림 4> 스마트폰을 통한 일평균 이용 시간

제2절 스마트폰의 사회적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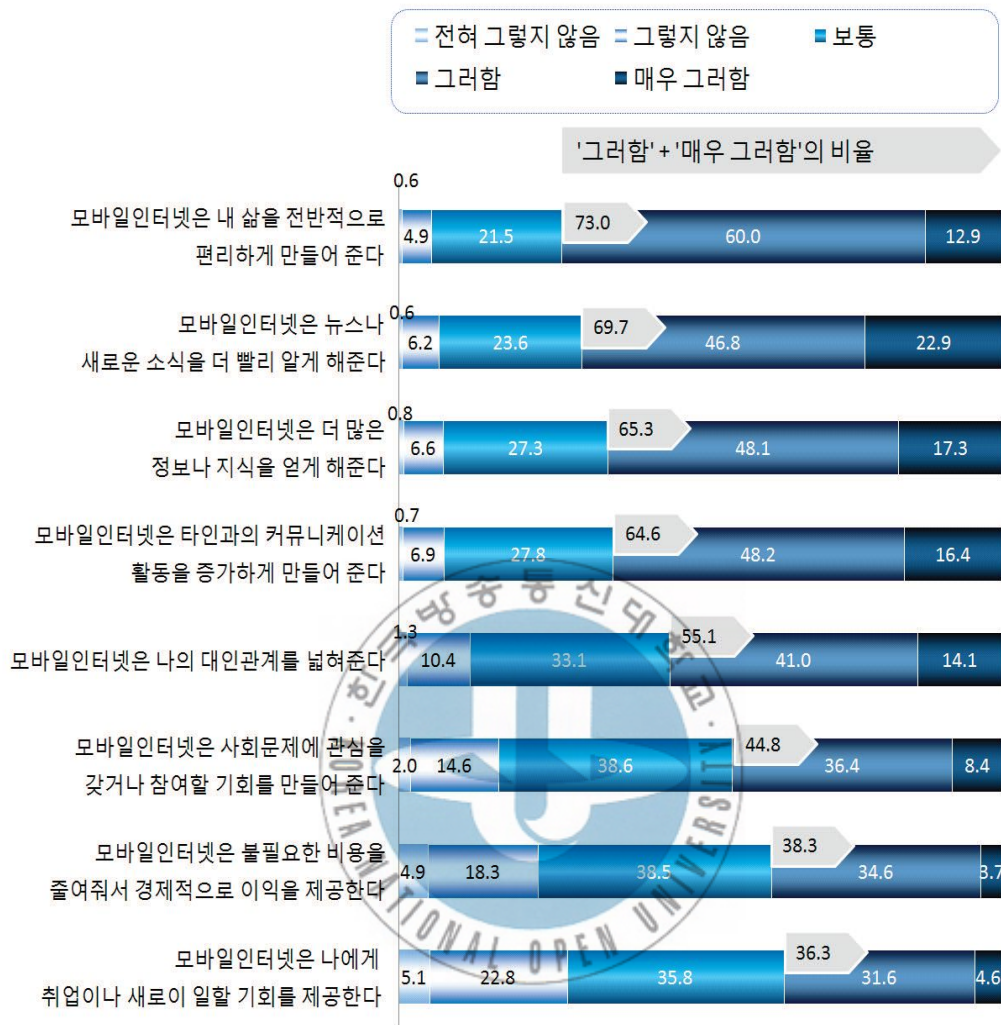
1) 편의성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정치 및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원태 외(2012년)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집단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정치담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고이용자 집단일수록 정보탐색과 정치 참여 의견 표명이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와 같이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보면 73.0%(‘그리함+매우 그리함’)가 ‘모바일인터넷은 내 삶을 전반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69.7%(‘그리함+매우 그리함’)가 ‘모바일인터넷은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해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쇼핑, 뱅킹 등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스마트폰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친구들과 가족관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과의 긍정적 변화 중 한 가지는 뉴스를 텔레비전이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다거나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 문제 등을 SNS를 통해 볼 수 있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 설명하면서 그 기능들을 공유하면서 이전보다 친근함을 느끼게 되고, 대화가 많아졌다는 사례도 보고되었다(김영선, 김래선, 조은희, 이현숙, 2013).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이폰 초기 사용자들은 MP3, PMP, 게임기 등의 단말을 아이폰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계속 사용하는 단말(네비게이션)에 대한 유사시 대체 단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윤전, 이형일, 2010). 특히,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편 검색, 도착 시간안내 등 대중교통 사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다. 주위의 맛집 위치, 영한/한영사전 등 기존 인쇄

매체 대비 소지와 사용이 편리하다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그림 5> 스마트폰 이용 후 이용 인식

강나리(2012)는 비서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은 업무의 즉시성을 향상시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무의 절차 역시 간소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혜인, 배영(2011)은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이용정보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다. 연구자들은 스마트폰 이용 동기로 유행추구, 정보추구, 관계추구, 매체추구 등 4가지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사회자본은 대인신뢰, 제도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스마트폰 이용 동기는 대인신뢰와 규범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았다. 단지, 관계 추구형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제도신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는 사회자본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시간 역시 사회 자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대화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인신뢰가 높고 네트워크도 크며 규범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많이 교환할수록 신뢰와 규범도 높아졌다. 이 같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자본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소통성

금희조, 조재호(2010)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투표 참여나 정치선거캠페인, 시위나 사회운동, 특정 제품 불매운동 등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SNS를 통한 소통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인 정보를 얻는다거나 정치인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참여 정도가 높았다. 이는 스마트폰과 SNS가 정치, 사회적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선인터넷의 환경과 스마트폰의 사용은 통화나 문자메시지보다 인스턴트 메신저⁸⁾와 SNS를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져 예전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사람들

8) 인스턴트 메신저(instant messenger)는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두 명 이상의 즉각적인 (실시간) 텍스트 통신에 이용되는 클라이언트이다. 간단하게 메신저라고도 하며, 인터넷을 통한 메신저라는 의미에서 인터넷 메신저라고도 한다.

과의 소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이 발표한 모바일인터넷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그려함+매우 그려함’)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증가하게 만들어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55.1%(‘그려함+매우 그려함’)가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대인관계를 넓혀준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보성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환경으로 인해 원하는 정보에 대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습득이 가능해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3)가 발표한 모바일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 (‘그려함+매우 그려함’)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해 준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5.3%(‘그려함+매우 그려함’)가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해 준다’고 응답했다.

과거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스크 탑 PC 또는 노트북과 초고속 인터넷이라 부르는 유선 랜이 필요했다. 집집마다 컴퓨터는 반드시 1대씩 보유해야 하는 필수 기기였으며, 1가구 2대의 컴퓨터 비율도 점차 높아졌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 이후 컴퓨터 보유율이 변화 되었다.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가구 내 컴퓨터 보유율이 2013년 7월 기준 80.6%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IT업계는 올해 태블릿PC 출하량이 노트북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제 스마트 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뉴스, 콘텐츠 등과 같은 정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접하기 때문이다.

정보 습득이 더욱 편리해 지게 된 요인 중에 또 한 가지는 페이스북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 ‘페이퍼’ 기능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뉴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기사를 비롯해 기술, 여행, 요리, 스포츠, 웰빙 등 기본 언론 매체가 다루던 분야에서부터 유머, 귀여움, 아이디어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루었던 분야도 다룬다. 이제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정보를 습득하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내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간의 제약도 없다. 컴퓨터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용해야 했지만, 스마트폰은 그러한 제약이 없어짐으로써 정보습득이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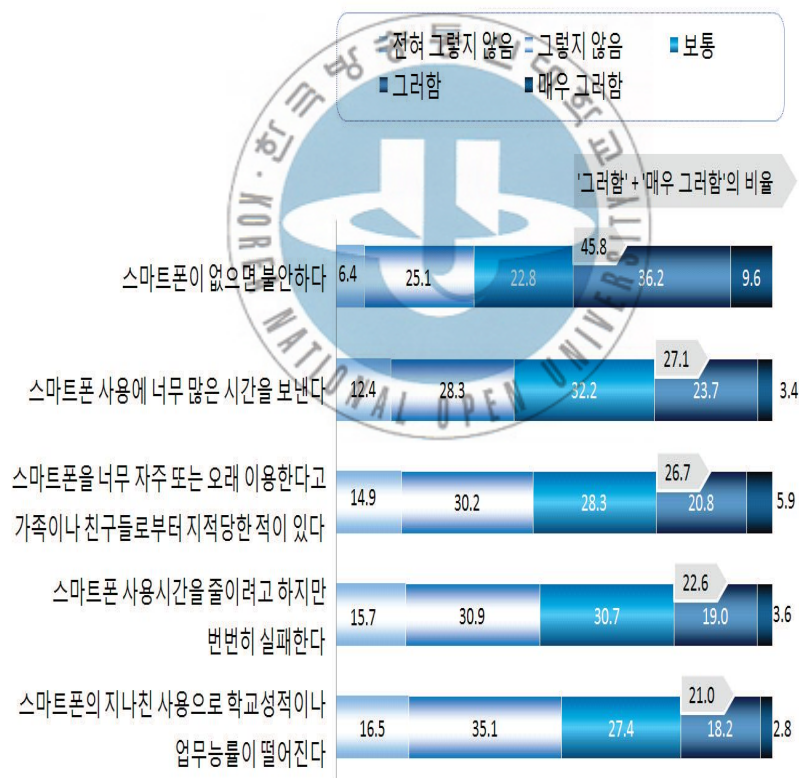
2. 부정적인 영향

1) 중독성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다수 학자들은 스마트폰 중독을 인터넷 중독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같은 맥락의 중독성으로 정의한다. 우선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을 학자별로 살펴보면, 이민석(2010)은 휴대전화 중독을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충동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았다. 박용민(2011), 박지선(2011)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강희양, 박창호외(2012)는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하여 생기는 초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대부분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 이용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는데, 사회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려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이다(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1) 불안과 우울

황용석, 박남수(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 유형은 크게 부적응, 일탈, 강박, 집착, 금단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독 점수의 상, 하위 15%를 기준으로 고위험군과 안전군을 살펴본 결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동조성, 모방성, 충동성, 사회적 고립감 및 불안감이 안전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요인들은 친구와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의 횟수, 충동성, 모방성, 사회적 불안감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들과의 소통이 활발할수록 충동적이고, 모방적이며 그로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휴대폰에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심리적 성격과 대인 관계 특징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그림 6> 스마트폰 이용 과몰입 관련 행동 및 인식

<그림 6>과 같이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45.8%(‘그려함+매우 그려함’)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라고 답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용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놓아야 마음이 편안하게 잠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는 사람도 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반드시 가져가는 이용자도 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겪는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은 가족관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다 보니 가족 간의 면대면 대화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각자의 개인 공간속에 빠져 지내게 된다.

이해경(2009)의 연구결과, 10대 연령집단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은 우울,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동호회 활동시간, 책 읽는 시간이 적을수록, 타 서비스보다 문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음성통화 건수가 적을수록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우울 증상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장혜진(2002)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자기개념이 낮음을 알 수 있었고 또래와 애착 관계에서 의존적이고 불안함을 보이며 자기 통제력이 낮고 충동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휴대전화 중독의 구성 개념 중 병적 몰입이 휴대전화 중독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한주리, 허경호, 2004). 충동성, 애착-불안, 애착-의존성 등 변인이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지나친 이용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것은 충동성 변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애착-불안, 애착-의존성 변인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선남, 김현옥(2004)의 연구는 자아개념과 일부 사회경제적 조건 및 환경요인이 휴대전화의 이용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장성화, 오은정(2009)의 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과 우울, 불안,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중독적 이용현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여정보다는 남성이 휴대전화 중독에 취약함을 밝혀냈다. 휴대전화 중독과 불안, 우울한 심리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한 심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신체적 건강악화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알려줄 진단 지수인 가칭 ‘S-척도’⁹⁾를 개발하고 인터넷 중독 기숙 치료학교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시력저하, 허리통증 등의 신체적 문제, 대인 관계기피,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등의 사회적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김양중, 2012.; 김영주, 2013). 학술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스마트폰의 과다 이용에 대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2011)은 사람들의 스마트폰 이용 패턴을 볼 때 특정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항상 휴대가 가능하고, 멀티태스킹¹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스마트폰은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 있으며 다른 미디어, 다른 활동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다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이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시력저하나 손목 저림, 고개를 지나치게 숙이게 되면서 허리가 굽어지는 현상도 스마트폰 과다이용에 대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황경해, 유양숙, 조옥희(2012)는 스마트폰 중독현상으로 인해 어깨통증 등의 신체적 증상과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2012)은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교생활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현상은

9) 정부가 2011년 처음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중독률이 1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SNS 열풍으로 인한 뉴미디어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가칭 S-척도)를 개발하여 201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0) 1개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명령체계)이 행해지는 것.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기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의와 특성들을 종합해본다면,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용량이 갈수록 늘어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한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다. 분명한 것은 스마트폰의 과다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에 관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시도해야 할 것이다.

2) 폭력성(사이버불링)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또 하나의 문제인 따돌림 현상을 만들게 되었다. 최근 카카오톡¹¹⁾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일명 ‘카따’ 현상이 등장하기도 했다(박훈상, 이철호, 2013). ‘카따’는 카카오톡의 왕따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에서도 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한 친구를 정해놓고 집단 따돌림을 한다거나 그 대상을 비방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친

11) Kakao Talk : 카카오사가 만든 스마트폰용 그룹 채팅 프로그램. 무료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이 그룹이나 1:1로 채팅할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로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연락처, URL 링크 같은 멀티미디어도 첨부할 수 있다.

구와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룹채팅을 통해 그 따돌림의 대상자를 그룹채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SNS를 통한 따돌림이나 욕설, 괴롭힘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여고생(16)이 자신이 살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유족들은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이 여고생이 숨진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사 내용 및 가족의 증언을 종합하면, 여고생은 5개 학교 10여명의 남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를 받았으나 그곳에서는 심한 욕설이 오고 갔다. 몇몇은 여고생의 중학교 동창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르는 사이였다. 여고생은 처음에는 같이 욕설로 대응했지만 곧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한 것이다(한겨레, 2012.8.17. 기사).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살 학생은 같은 반의 소위 일진이라는 친구가 숙제를 대신 해줄 것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이후 일진 학생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피해 학생은 이를 담임선생님에게 알렸다. 그러자 일진 학생들은 대놓고 피해 학생을 괴롭히지는 않았다. 대신 이들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시도 때도 없이 피해 학생을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것이다. 피해 학생이 퇴장하면 또 다시 초대해 조롱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사이버 폭력 빈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12년 5.7%에서 2013년 7.2%, 2013년 7.9%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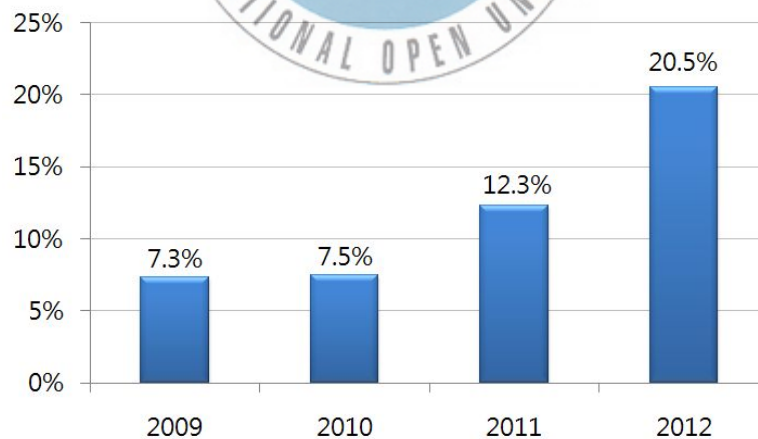
국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으로 인한 폭력은 학교, 컴퓨터, 휴대전화에서의 비행 친구 수, 부모로부터의 욕설, 폭력경험, 충동성, 도덕적 죄책감이 제시되었다(남상인, 권남희, 2013). 즉 주위에 비행친구들이 있고 부모로부터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일수록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많다는 것을 의미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이러한 카카오톡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 등의 현상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사회적인 문제성을 인식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욕설자제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카카오톡(카톡) 왕따’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 학생을 지목해 초대한 뒤 단체로 거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끊임없이 그룹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카톡 감옥’ 등 수법이 다양하다.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이 없었을 당시에는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이 학교 수업시간과 같이 직접 대면하는 시간에 한정돼 있었다면,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그 위험성이 24시간 내내 잠재한다는 것이다.

3) 선정성

스마트폰이 사용에 대한 어떤 규제 등이 없어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를 무방비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 매체를 접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게임을 무한정 즐길 수 있는 휴대전화로, 이를 통해 사행성 게임과 음란물 애플리케이션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은 게임 중독을 부추길 위험도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면서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중독 증세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그림 7>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 콘텐츠 접촉 비율

<그림 7>에서 보듯이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콘텐츠를 접촉하는 청소년들이 201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물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접촉하는 경로가 P2P¹²⁾ 및 인터넷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 받는 것이 가장 많았고,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비디오 혹은 DVD, 텔레비전, 스마트폰 순으로 이어졌다. 비록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접촉하는 비율이 다른 경로보다는 높지 않은 비율이지만 유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는 수단으로는 스마트폰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는 성인물을 접한 청소년들의 5%가 성인물을 보고 성추행, 성폭행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해 앞으로 청소년을 유해사이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나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이 각별히 필요할 것이다.

제3절 가족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1. 스마트폰과 가족커뮤니케이션의 관계

가족의 구성원들은 가정생활을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고 주체의식을 형성하여 인성 발달을 이룬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 중 가족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 간에 언어나 표정, 몸짓의 신체 동작 등을 매체로 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 과정이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정경란, 2001 재인용). 특히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서 인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이며,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최초의 장소이다(김정선,

12) 'peer-to-peer'의 줄임말로, 주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배포를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한 형태이다.

1995; 한상임 2009).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바람직한 기준이 되는 존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은 가족생활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특유의 의미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역할조망과 자아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이유 등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권혜진, 윤종희, 1992; 김순옥, 1995; 민하영, 1991; 장경란, 2001 재인용)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장호선(1987)은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으며(이정숙, 2007), 민하영(1991)은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권영길, 2009)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가정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주로 가족 내의 위치가 다르고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지시, 명령, 훈계 등을 하여 수동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고,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이나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준에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의 선행연구에서 Ginott(1965)은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권영길, 2009 재인용).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 역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초기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채피, 맥뢰드, 와크만(Chaffee, McLeod, & Wackman, 1966)에 의해 제안, 발전된 사회 지향성과 개념 지향성의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사회 지향적인 가족은 조화롭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며, 타인과의 조화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감출 것을 강조한다. 반면 개념 지향적인 가족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후 가족 커뮤니케이션은 베임스와

올손(Bames, & Olson, 1985)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과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은 부모-자녀 사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만족을 높여주는 유형으로 대화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조운경, 김영석, 2009)의 특징을 가진다. 반면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은 통제적인 유형으로 부모-자녀 사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이정(2005)의 연구에서 가족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개방적일수록 어린이의 공격성은 감소하며, 가족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통제적이고 부모의 미디어 폭력 중재가 적을수록 폭력에 대한 아동의 도덕추론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볼 수 있다. 조운경, 김영석(2009)의 연구에서는 개방적 가족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개방적 가족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을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으며,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혜정, 2010).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게 나오고, 스마트폰의 비중독군은 스마트폰 중독군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기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류미숙 외, 2011).

따라서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 즉,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 때 스마트폰의 의존도도 낮을 것이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패쇄적이고 소극적인 자녀는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이용 확산에 따른 생활방식 및 소통 양상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중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가정 내 일관된 교육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래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이런 변화에 의한 가정 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행위 수단으로 활용되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개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개인화 현상이란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가 지극히 개인적인 소유물로 각자 다른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혼자 다른 친구나 불특정다수의 구성원과 소통을 시도한다거나 혹은 게임을 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송매체 이용자 현황을 담은 ‘2013년 방송매체이용 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타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시간 44분, PC 노트북은 1시간 38분, 태블릿은 1시간 8분, 라디오 1시간 5분, 신문은 30분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 시간 분석결과, 지상파TV 이용률은 저녁 9시대 45.8%, 아침 8시대 13.8%로 케이블 TV(3.3%, 0.8%) 등 다른 매체에 비해 13배 이상 높았다. 반면 오후 2시대에는 케이블 TV 이용률이 3.7%로 지상파TV(1.3%)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5명 가까이(46.3%) TV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37.3%)은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했다. 전년대비 텔레비전 중요도는 낮아지고(53.4%→46.3%) 스마트폰 중요도는 높아진 것(25.0%→37.3%)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61.8%)와 20대(67.3%)는 스마트폰을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응답하였다. 전년에 비해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하는 연령대와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은 미디어의 이용에 있어 개인화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TV 이용자의 31.7%로 나타났다. 시청 중인 TV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나 문자/메신저, SNS를 이용하는 비율도 TV이용자의 28.3%로 나타났다. 향후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형 디지털 미디어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동적인 TV시청 방식도 점차 능동적인 소비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았다.

스마트폰 이용에 있어 개인화 현상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인 텔레비전 이용 환경

에서도 등장했지만, 특히 뉴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또한 개인화 현상은 어린이나 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지는데, 가정 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하는 미디어 이용보다는 개별적인 미디어 이용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의 개인화 현상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했으며,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지극히 개인적인 매체인 듯 보이지만 사실 개인과 개인을 네트워크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언제 어디서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매체이기도 하다.

2. 스마트폰과 가족커뮤니케이션의 갈등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3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스마트폰 보유율은 이전해 보다 14.7% 높아진 79.7%의 많은 보유율을 보이면서 스마트폰은 최근 디지털 미디어 매체 가운데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매체 중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관심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실시간 사회참여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탑재된 여러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연예계나 뉴스정보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주요 서비스 기능은 소셜네트워크 게임과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등 실시간 채팅서비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수간의 커뮤니티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혹은 혼자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부류 중 스마트폰은 가족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관계에서 효율적인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서적인 면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라인¹³⁾과 같은 특정 대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횟수가

많아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이들에게 친밀감을 줌으로써 서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역할 중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 등의 개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 매체가 자녀의 과다이용에 대한 끊임없는 부모의 간섭이나 그로인한 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집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미디어가 되기도 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기계적인 기능면에서는 더할 나위없는 훌륭한 매체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교류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둘러싼 논제는 지금까지도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는 과제 중에 하나이다.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81.2%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과 메신저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채팅이나 게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한 콘텐츠다. 청소년은 스마트폰 이용을 통해 또래들과 하나의 놀이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을 통해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통제 불능의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매체인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의한 중독적인 증상을 보이는 자녀들은 학교나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이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상생활에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과의 소통의 문제이다. 스마트폰 본연의 특징과 역할은 소통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SNS로 친구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용하다보면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온라인에서 타인과의 소통에 집중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이정규, 2011). SNS를

13) 라인(LINE)은 NHN의 일본 내 계열사인 라인 주식회사(당시 네이버 재팬)가 2011년 6월 23일에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다. 라인은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8개국에서 이용되며, 국내 이용자보다 해외 이용자가 월등히 많다. 현재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하였던 카카오톡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해 불특정 다수의 타인과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있어 정작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소통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과 지인들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면대면 대화가 줄어들면 주변 환경에 무관심한 사회 구성원이 증가하여 개인주의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희준, 2011).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용은 진정한 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들은 스마트폰 이용자를 전반적으로 대학생, 성인, 직장인들을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초기 스마트폰이 보급 되어 질 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들로 인한 갈등들이 지금과 같이 많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언론학회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3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및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82.8%로 높게 나타났다. 약 10명의 청소년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 기록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비율인 40%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기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성향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친구들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동질감 및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구현영, 2010). 이런 시기에 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을 제한을 한다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거나 스마트폰 과다이용으로 인해 학교 성적이 하락한 것이 스마트폰이라 여겨지는 부모들은 끊임없는 중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심한 반항을 하며 부모로부터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대화거부의 상황까지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2012)에 따르면 청소년은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66.2%로 성인의 56.2%에 비해서도 10%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2012)는 성인 22.2%에 비해 청소년 40.5%로 2배가량 스마트폰을 과다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의 과다이용 행태는 가정에서 부정적인 사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소년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지적을 받고, 주변으로부터 불평을 듣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했다는 경우가 74%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시기로 성인에 비해 중독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용조절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고자 하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보영, 2010, 이유정, 2012 재인용)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가족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기 독립된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가족 구성원과 특정 대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소통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 소통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스마트폰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 발달로 인해 가족들의 소통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이뤄지고 있다.

미디어 발달로 인한 가족의 소통 변화는 사실 최근 이슈는 아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금껏 아날로그 미디어인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가족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매체로 볼 것이냐 혹은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로인한 대화 소재를 찾아 가족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매체로 볼 것이냐 하는 연구들은 예전부터 이뤄졌던 것이고, 이런 연구들의 시작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 기기중 하나인 스마트폰이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텔레비전과 가족의 의사소통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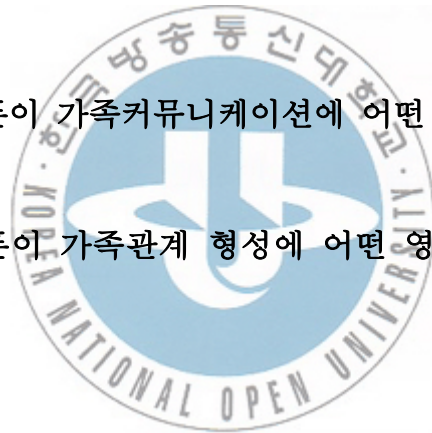
주제에 대한 관심은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스마트폰이란 새로운 미디어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가정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마트폰 활용과 스마트폰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가족 내에서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스마트폰이 가족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스마트폰이 가족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의미와 역할을 지니는가?

연구문제 3 스마트폰이 가족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조사대상

본 연구는 부모와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경험을 타인에게 말로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40명의 30~40대 부모와 그들 자녀로 초등학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중학교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 고등학교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총10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심층 인터뷰는 2014년 1월4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한 그룹에 총2회씩 방문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평균 인터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였다. 10개 그룹 중 8개의 그룹의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퇴근 후 혹은 자녀들의 방과 후 저녁 시간을 이용하였다. 인터뷰는 편안한 방식에서 이 연구에 필요한 몇 가지의 준비된 질문지를 가지고 각 가정에 동일한 질문을 제시하여 이들의 반응과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기존 선행 논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베이 방식¹⁴⁾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지만 본 연구는 서베이 방식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이 가족 내 부모와 자녀 간의 스마트폰으로 인한 행동 변화나 이용 형태, 가족관계에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방식 변화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인터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참여자의 연령, 성별, 부모님의 직업, 거주지를 <표 4>에 제시하였다.

14)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통하여 그 집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방법 : 미리 구조화되어 있는 설문지나 면접을 통하여 사회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서베이의 목적은 어떤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대규모 응답자들을 통하여 정보를 구하는데 있다.

〈표 4〉 심층 인터뷰 참여자 구성

그룹	가족구성	아빠 직업	엄마 직업	주거 지역	스마트폰 사용시간
1	아빠(47),엄마(42),아들(중2),아들(초6)	자영업	회사원	경기 도/ 안양	하
2	아빠(46), 엄마(45), 아들(고1), 딸(고3)	회사원	주부		중
3	아빠(40), 엄마(40), 딸(초2), 딸(고1)	회사원	공무원		상
4	아빠(48), 엄마(45), 아들(고2), 딸(중3)	공무원	주부		하
5	아빠(41), 엄마(42), 딸(중1), 딸(초5)	회사원	회사원		상
6	아빠(45),엄마(40),아들(중3), 아들(중2)	회사원	회사원		중
7	아빠(45), 엄마(42), 딸(중2), 아들(초6)	세무사	회사원		상
8	아빠(44), 엄마(43), 딸(중3), 아들(중2)	회사원	은행원		상
9	아빠(46), 엄마(42), 딸(고1), 아들(중2)	회사원	자영업		상
10	아빠(43), 엄마(38), 딸(고2), 아들(중3)	회사원	공무원		중

제2절 분석방법

스마트폰 활용도의 구분은 각 가정의 구성원들 중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으로 구분하였다. 평일은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시간이나 방과 후 일정 시간이 모두 같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자녀들의 스마트폰을 주말 일일 평균 이용시간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뉘었고, ‘상’에 속하는 그룹은 일일 평균 5시간이상 사용하는 그룹으로 정하였으며, ‘중’은 3시간~5시간 이내 이용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하’ 그룹은 일일 평균 이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정하고 각각의 활용도를 구분하였다. 또한 피쳐폰¹⁵⁾을 사용하는 자녀나 혹은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그룹도 하의

그룹에 포함을 시켰다. 스마트폰 활용도의 구분 결과는 상 그룹은 5개, 중 그룹 3개, 하의 그룹은 2개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조사 대상자들의 집에서 이뤄졌고, 미리 작성된 비구조화 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자에게 미리 질문지를 읽게 한 뒤 연구자가 질문을 던지면 조사 대상자들은 질문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자녀들의 스마트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이 가족 구성원 간 소통방식에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 과연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관계의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즉,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부모 자녀들은 어떤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내는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 부모 자녀간의 관계형성이나 친밀감 등의 형성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은 가정과 달리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가정에 비해 의존도가 낮은 가족들은 대화의 형태들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했다.

인터뷰 내용은 크게 부모와 자녀에게 묻는 질문으로 먼저 부모에게는 자녀와 스마트폰으로 인한 자녀와의 관계, 갈등문제와 해결방안,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현상을 보인적은 없는지, 스마트폰에 대한 중재와 그 중재에 따른 자녀들의 반응을 알아보았고, 스마트폰이 자녀에게 과연 부정적인 요소인지, 긍정적인 요소인지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또한 자녀에게는 스마트폰의 이용행태와 또래와의 관계, 스마트폰으로 인한 중독현상을 스스로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조사 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고, 기록 중에서 본 연구 문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5) 피쳐 폰(feature phone)은 스마트폰(smartphone)보다 가장 낮은 연산 능력을 가진 저성능 휴대 전화이다. 피쳐 폰의 별명은 "멍청한 전화(dumb phone; smart의 반대개념으로서 dumb)"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은 스마트폰의 연결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4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기준으로 가정에서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가족 관계 형성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았다.

제1절 스마트폰이 가족소통에 미치는 영향

1. 대화단절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중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오로지 손안에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부모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자녀들은 혼자만의 공간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친구들과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게임 등으로 가족이 아닌 친구 혹은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와 계속해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서도 보고된 바 있듯이 최근 디지털 미디어 기기 중 스마트폰 이용자가 3명중 1명으로 상당히 많은 보급률로써 가족 간에 개별화를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 아닌 스마트폰 속의 친구나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으로 인한 자녀의 탈공간성 현상을 부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마트폰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매체라 단정하고 그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스마트폰 중독에 의해 가정의 불화 발생은 자녀의 탈선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중독되는 현상들을

우려하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중재를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철저히 스마트폰으로부터 차단해 버린다. 이로 인한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거부하고, 수일동안 대화가 단절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대화 단절은 갈등이 깊어져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부모들은 이런 대화의 단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는 스마트폰의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한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미워 죽겠어요. 어떨 땐 정말 몽둥이라도 들고 싶어요. 한참 예민한 나이라서 차마 심한말도 못하겠고, 좀 잔소리 한다 싶으면 자기 방으로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고... 뭘 놔의 친구들과 대화를 그렇게 하는지 방에 쳐 박혀 꼼짝도 안하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몸 만 여기 있지 맨날 스마트폰 속에서 살아요. 밥 먹을 때도 들고 나오고, 텔레비전 볼 때도 옆에서 계속 ‘카톡카톡’ 올려대고, 저 희가 사준 핸드폰이지만 정말 사주고도 후회돼요.” (그룹9, 엄마)

스마트폰에 의한 자녀의 탈공간성은 대화단절에서 갈등으로 이어져 스마트폰의 부정적 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상태로 보여 졌다. 탈공간성을 보이는 자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뉘 볼 수 있었다. 한 가지는 끊임없이 메신저를 통한 친구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자녀, 나머지 한 가지는 게임 등으로 인한 가상세계에 빠져 있는 자녀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집안에서는 부모와의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자녀가 친구들과는 자녀의 방에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는 자녀와 또 다시 갈등이 반복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도대체 말을 안들어요. 어떻게 해야 애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을까요? 뭐라 말만하면 부모가 나쁘다 하고, 자기들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너무 화가 나서 전화기를 일시정지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럼 왕따를 당하네 뭐 어쩌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등록시켜주면 언제 그랬냐 싶게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사실 제가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룹3, 엄마)

2. 게임중독

대화 단절로 인한 개인화는 스마트폰 과다이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는 자녀는 집에 있으면서도 다른 가족들과의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친구들과의 소통만을 시도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소통의 활용 목적이 아닌 스마트폰 게임을 위한 용도로 심지어 게임중독현상을 보이는 자녀들도 볼 수 있었다. 2013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79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58.6%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¹⁶⁾에 빠져 끊임없이 부모와의 갈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할리 없는 부모는 게임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자녀에게서 스마트폰을 뺐을 경우 자녀는 불안 증세를 보였다.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서 공부도 안하고 뭐라고 좀 하면 대들기 일쑤라니깐요. 하루는 핸드폰을 압수해 제가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녀석이 핸드폰을 뺏었다는 것에 반항으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저희랑 말 한마디 안하더라구요. 다 큰 자식 때리기도 그렇고 10일 넘게 이야기를 안했던 적이 있어요. 전에는 한참 컴퓨터로 게임을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 같네요.”

(그룹8, 아빠)

기존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황용석, 박남수(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 유형이 부적응, 이탈, 강박, 집착, 금단 요인’이라는 보았던 것과 일치

16) MMORPG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이링 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의 줄임말이다.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온라인 게임 중 동시에 수천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인터넷을 통해 모두 같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플레이하는 롤플레이링 게임(RPG)의 일종이다.

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해경(2009), 장혜진(2002), 한주리, 허경호(2004)의 선행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의한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난폭함까지 드러내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같은 현상들을 연구 대상의 자녀에게서 볼 수 있었다.

3. 건강악화

자녀들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시간을 친구와의 대화 혹은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녀와 대화 단절을 떠나서 이 아이들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가족들과의 소통은 형식적인 수준의 대화 몇 마디만 오고갈 뿐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화의 단절뿐만 아니라 일부 자녀들은 스마트폰 중독 현상도 보였다는 부모의 대답도 들을 수 있었다. 늦은 저녁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과 카카오톡 등을 통한 대화에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한가지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시력저하, 허리통증 등의 신체적 문제, 대인 관계기피,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문제 등이 논의되었던 김양중, 2012; 김영주, 2013에서도 볼 수 있었다.

“새벽에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딸아이 방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깰까봐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 이불 안에서 뭔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분명 이 새벽에 잠 안자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이불을 확 걷어봤죠. 역시나 친구랑 카카오톡을 하고 있지 뭐니까? 와~ 그때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스마트폰을 분신처럼 끼고 다녀서 맨날 혼나는데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친구랑 그러고 있으니, 그럼 다음날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한참 키가 클 나이인데 성장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그룹7, 엄마)

각 그룹별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을 때, 스마트폰 활용에서 ‘하’에 속하는 그룹1과 그룹4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그룹은 크고 작게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각 가정에 가장 큰 갈등요인 작용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자녀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이었다. 그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안과 성적하락, 혹은 자녀들의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의 대화로 인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건강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자녀들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녀들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4. 난폭성

부모들이 흔히 자녀에게서 스마트폰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인긴 하지만 우선 스마트폰을 압수한다거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일시정지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강압적인 중재로 잔소리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중재는 결국 한참 예민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항과 동시에 대화를 거부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자녀들은 부모의 중재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은 물론이고 난폭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손에서 아주 스마트폰을 달고 살길래, 너무 화가 나서 이 녀석의 태도를 고치고 말겠다고 맘 먹었죠. 쇼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들에게 말 좀 하자고 앉아보라고 했더니, 듣는 체도 안 해요. 그래서 리모콘을 뺏은 후 텔레비전 전원을 껐더니, 내 손에 있는 리모콘을 확 잡아채더니 다시 전원을 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하는 짓이냐고 등짝을 한때 때렸죠. 그랬더니 리모콘을 바닥에 확 던지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룹8, 엄마)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그룹별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스마트폰의 활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초등학생부

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녀와 부모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자녀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가시간을 이용해 소셜네트워크 게임인 카카오톡 게임을 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스마트폰의 친구들과도 거의 소통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의존도를 벗어나 다른 누군가의 소통을 하면서 정작 부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부모의 통제가 힘들어지고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대인관계 형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는 또래 의식이 강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더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 유해정보 차단서비스 전문업체인 플렌터넷과 KT 학부모 정보 감시단이 2012년 9월부터 한 달에 걸쳐 서울, 인천, 대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1,39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인 65.2%의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이유로 자녀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48%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특히 카카오톡 게임으로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등과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게임들이 유행함에 따라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소속감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유 유무와 사용시간 등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인터뷰 대상의 그룹 중 스마트폰 노출이 많은 그룹일수록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자녀들의 중독에 대한 정도가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처럼 자녀들이 스마트폰 중독이라 호소하는 가정들의 특성을 보면 이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과 부모가 얼굴을 마주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며, 결국 대화 단절은 그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한 불만으로 언성이 높아지고 갈등을 빚어내게 된다.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도피인지 혹은 단순 스마트폰 중독에서인지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자녀와 그런 자녀들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대화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문제점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났다. 우선 ‘스마트폰 중독은 기존의 인터넷 중독 및 휴대전화 중독의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했던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휴대전화의 편리성, 즉시성, 휴대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중독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 외에도 이명숙, 2005; 김기리, 이선정, 신효식, 2008년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 사용은 가족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홀해지도록 하여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가족 의사소통에 차이를 만들고, 인터넷 비중독군은 중독군보다 개방형 의사소통을, 인터넷 중독군은 비중독군보다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결론들은 본 연구에서 10개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지금의 스마트폰은 단순히 상호 소통의 기능을 넘어서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유행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자녀들은 자신의 소유물인 스마트폰 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맞춰 준다면 최신 기기의 선물이나 교환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렇게 자녀에게 어떤 보상으로 최신 기기의 스마트폰을 선물하고도 막상 그 스마트폰의 사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처벌의 수단으로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심한 경우는 압수를 하는 등의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디지털 미디어는 자녀와 부모간의 보상과 처벌, 그리고 다시 갈등과 화해의 구조로 반복되어지고 있다.

제2절 스마트폰이 가족소통에 미치는 의미와 역할

1. 정서적 교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자녀들의 부재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매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많지만, 반면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부모와 자녀의 갈등에 대한 화해를 위한 매체로 이용되기도 하고 혹은 일상생활이 바빠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부모와 자녀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소통의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신소영(2010)이 ‘스마트폰에는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응성’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성’이 있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 사이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에게 면대 면으로 할 수 없는 대화들을 좀 더 매끄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가족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딸이 고2인데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사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죠.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작용들도 많구요. 근데 딸아이가 이왕 휴대전화를 사줄 거면 스마트폰으로 사달라고 하더라구요. 엄마 아빠랑 카카오톡으로 무료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으면서요.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랑 수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락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그룹10, 엄마)

자녀와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디지털 미디어는 도구적 차원으로 부모와 정서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구적 차원으로서의 대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조윤경, 김영석(2009)의 연구에서는 ‘개방적 가족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개방적 가족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을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과 같이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은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중 일부 그룹은 자녀와 부모간의 메일이나 밴드,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룹도 있었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그룹2, 3, 5, 8, 9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스마트폰은 자녀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연락 매체라고 판단되어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그룹2의 부모도 있었다.

“학교 끝나고 간혹 연락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핸드폰을 사줬죠. 이제는 어디가면 간다고 문자나 통화를 하니깐 안심이 되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줬더니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안부를 묻고, 네이버 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족만 소통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었던데요. 거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뭔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진 등을 올려놓죠. 저 보라구요. 딸아이가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현재 딸아이 심리상태가 어떤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룹2, 아빠)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기기는 연락 매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평상시 가족 간의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던 이들에게 대화의 매개체가 되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각자 다른 등하교, 출퇴근시간, 더욱이 고학년의 자녀들은 학원이 밤 12시가 되어서야 끝나고, 어머니를 비롯해 야근에 회식에 늘 바쁜 아버지와 의 대화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매체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족 간의 대화가 이들에게는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는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부모들이 대

부분 직장인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는 면대면의 대화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는 마치 스마트폰이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다는 레이코우와 나바로(Rakow & Navarro, 1993)의 연구와도 같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는 휴대전화를 통해 감성적 지원이나 교감을 보내면서 정서적인 보살핌을 수행하고 있다는 김명혜(200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2. 가족관계 형성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85.9%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중 4.8%는 ‘학업이나 업무상 필요해서’라고 답하였다. 이렇듯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자녀의 교육이나 학습에도 이용하고 있었고, 갈등 해결의 도구나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며, 가족의 여가 활동이나 가족의 친밀감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이용계기가 가족의 여가 활동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아들이 현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시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EBS 강의를 들습니다. 저도 공부를 손에서 떼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아들 공부 봐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 공부들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시간 날 때 마다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과목을 다운받아 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면 평상시 고민 등을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면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이어주는 부자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그룹6, 아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러한 소통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전반적인 관계가 개선되고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스마트폰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개선에서 좋은 방향으로도 이용되고 있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마트폰 중독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 인식이 낮고, 가족 간의 친밀도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미숙외(2011)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게 나오고, 스마트폰의 비중독군은 스마트폰 중독군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기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자녀가 가정 적응의 하위요인인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방식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한참 예민할 때 예요. 딸아이는 지금 고3이고, 아들은 고1인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아주 호되게 보냈어요. 아무리 사춘기라지만 엄마인 저도 참기 힘들 때 많았죠. 어쩌나 변덕스럽게 구는지..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도 많이 있었죠. 문제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차차 좋아지겠지’하면서 그때마다 감정을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더 큰 벽이 생겨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는 그냥 장난스럽고, 웬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사줬어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안부정도와 꼭 전달해야 될 사항만 이야기해요. 스마트폰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은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룹2, 엄마)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의 활용도, 즉 이용시간에 따라서도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터뷰의 사례로도 알 수 있었다. 결국 처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지 않는 자녀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우려할

일이 적고, 가족 내에서 스마트폰 중재에 대한 갈등 요인이 적을 뿐 아니라, 개별화됨으로써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은 가족에 비해 활용도가 적은 가족들이 서로 면대면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이 없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니죠. 애들이 필요하면 집으로 전화오고 선생님 같은 경우 급한 전달 사항이 있으면 부모님 핸드폰으로 연락해줘요.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 말고도 많아요. 스카이프¹⁷⁾나 하마치¹⁸⁾등 컴퓨터에서 어플만 깔아놓으면 영상통화도 가능해요. 학교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룹4, 아들 고2)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교급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원을 늦은 시간까지 다니기 때문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반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룹4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과 중학교 3학년의 딸을 둔 그룹은 인터뷰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들 자녀들에게서 본 연구에 도움이 되는 많은 답변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본다면, 청소년기는 우선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긍정적인 때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방향, 자기 통제 등 자아 정체감 확립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은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마트폰이 대화의 단절과 소통, 갈등과 화해의 매개로 활용하는 방식은 가족의 구성원에 따른 스마트폰 기기의 보유현황과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님의 성향 등에 따라 활용도는 비슷하지만 대화의 형태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형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17) 인터넷으로 무료 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로 음성은 물론 영상과 메시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리눅스, 맥 오에스 텐, 윈도우 CE, 윈도우 모바일용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국어 지원을 하고 있다.

18) LogMeIn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공식사이트, 자기가 직접 네트워크(서버)를 만들거나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위의 10개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 한 결과 대체적으로 남자 아이들이 많은 가정은 스마트폰의 활용도와 관계없이 고학년이 되면서 가족 내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본래 대화의 횟수가 많지 않았고,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전반적으로 게임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여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들과의 소통의 매개로 이용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의 여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룹3과 같은 경우는 주말 평균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고등학교 1학년 언니와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모는 큰 딸이 현재 스마트폰 중독현상을 보일 정도로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된 모습을 말해준 것에 비해 둘째 딸인 초등학교 2학년은 거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핸드폰이 꺼져 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그룹의 자녀와 같이 나이가 어릴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와 반대의 그룹으로 자녀가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이용시간이 많지 않은 가정인 그룹1과 그룹4를 대상으로 살펴본다면 전반적으로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의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었다. 그룹1의 사례를 본다면 이 그룹은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인데도 딸을 가진 다른 가정보다도 일상적인 대화의 빈도가 높았다. 저녁시간이 되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다과를 먹을 때도 아이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리고 귀가하자마자 각자 자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다른 그룹과 달리 스마트폰 활용이 거의 없는 그룹1과 그룹4의 가정에서는 다함께 거실에 앉아 가족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뉴스를 시청한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자녀들의 스마트폰의 과다 이용을 둘러싸고 반복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가정환경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이 존재하는 그룹과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거의 없는 그룹에게서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많은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최신 기기의 교환으로 보상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는 그룹은 아날로그 미디어의 이용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다. 예를 든다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한다거나, 혹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몇 시간 시켜주는 등의 보

상이 주어졌다.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의 끊임없는 미디어의 갈증을 디지털 미디어가 되었던 올드 미디어가 되었던 어떤 보상의 도구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보상이 유사해 보이는듯하지만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의 차이점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현상에서 갈라졌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그룹의 자녀들은 올드 미디어에 대한 중독현상을 보이지 않았고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제3절 스마트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소통의 매체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등장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가족 내 대화형태가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는 카카오톡, 밴드, 라인 등 많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카카오톡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전국 10대~60대 SNS 사용자 2,2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가장 많이 쓰는 SNS는 카카오톡으로 각 나이대별로 선호하는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바 있다. 먼저 가장 즐겨 쓰는 SNS는 '카카오톡'이 37.2%로 1위였으며, 2위는 '페이스북'(31.8%), 3위는 '카카오토티'(12.7%)로 3가지 SNS가 전체의 81.7%를 차지했다. 그 뒤로 '트위터'(6.1%), '밴드'(3.4%), '싸이월드'(2.7%), '라인'(2%), '인스타그램'(1.5%), '마이피플'(0.8%)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간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화 앱은 카카오톡이라고 답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 선두주자라는 점에서 일 것이다. 사용화 초기에는 불안정한 서비스와 통신사들과의 데이터 사용량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

한 서로간의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스마트폰은 부모와 자녀간의 면대면 대화가 없는 요즘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겠다. 카카오톡은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대화 애플리케이션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들이들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무뚝뚝해요. 아들만 키우는 집 뻘하잖아요. 집에서 거의 말도 없고, 무슨 말만 하면 툭툭 거리고 짜증내기 일쑤죠.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대화 할 때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렇게라도 서로 간에 대화가 오고가 더보면 아들이 서운했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저 또한 직접 이야기하는 잔소리보다는 글로 쓰는 형태가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나면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속스러운 듯이 안기기도 하고 그래요. 서로 더 친근함을 주는 거 같아요.”(그룹6, 엄마)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모와 자녀 간의 스마트폰의 대화를 함으로써 변화가 있다면 면대면 대화보다는 대화의 횟수가 증가했고, 실시간 이용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모티콘, 동영상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는 짧게 할 수 있는 대화에 그치고 안부 정도를 묻고 자녀에게 응원 메시지 정도의 대화 수준으로써 깊이 있는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2. 면대면 대화의 감소

본 연구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관계형성에 매개체 역할로써는 직접 보고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2013년 ‘경기웹진’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기기의 발달 및 소지가 일반화 되면

서, ‘스마트 기기가 가족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독자 51.5%가 ‘도움이 안 된다.’ 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된다.’ 는 의견도 48.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가 가족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단편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만 가능할 뿐 진지한 대화는 하지 못한다(49.6%).’ 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기기를 통한 간접대화이므로 표정이나 어감 등 교감이 어렵다(32.6%).’ 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8.2%가 ‘얼굴을 마주 보며 하는 직접 대화를 선호한다.’ 고 답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간접 대화’ 를 선호한다는 의견은 11.8%였다. 하지만 대화의 시간이 부족한 현대 사회는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스마트폰 세상을 함께 공유해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여 준다면 사춘기 자녀들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개선해 극복해 나갈 것이다.

“서로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서로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카카오톡 대화명을 보면 애들 심리도 조금은 파악할 수 있구요. 아침에 가끔 말 못하고 나온 것들 있으면 학교 가는 길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래요. 제가 선생님인데요,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전달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단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편하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스마트폰은 깊이 있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간단한 이모티콘을 이용한 짧은 대화들만 하고 좀 무거운 이야기들은 직접 얼굴 보고 해야죠.” (그룹10, 엄마)

3. 디지털 기기 활용에 따른 이해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그룹 ‘하’ 에 속하는 그룹1과 그룹4의 가정에서는 ‘상’, ‘중’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우선 그룹1과 그룹4와 같은 경우 본 연구를 위해 2번 방문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 즉, 부모와 자녀가 모두 인터뷰에 참여해주었다. 그룹1에 속하는 구성원을 살펴보자면 아빠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고, 엄마는 회사원으로 맞벌이 상태였으며, 큰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룹4와 같은 경우 아빠는 시청 공무원이고, 엄마는 전업주부다. 자녀로는 고등학교 2학년의 아들과 중학교 3년의 딸로 구성되었다. 두 그룹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현황으로 우선 그룹1의 경우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둘째 자녀는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이다. 그룹1의 부모와 자녀에게서는 특별한 갈등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인터뷰 도중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단한 게임을 즐기는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두 그룹의 자녀들은 또래 친구들과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에 친구들과의 소통의 방법은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끼리 그렇게 급하게 할 이야기들은 학교에서 다 하죠. 간혹 사실 조금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어디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시간이 변경됐다거나 전달사항들을 카카오톡으로 단체톡 해 줄 때 저는 받지 못해서 가끔 당황한 적은 있어요. 그래도 집에 전화기나 혹은 부모님에게 급한 용무들은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친구들 번호 메모해뒀다가 전화 할 일 있을 집전화로 해요.” (그룹1, 아들 중2)

두 번째 ‘하’에 속하는 그룹4의 스마트폰 보유현황으로 부모는 모두 피쳐폰을 사용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기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피쳐폰으로 다시 바꿀 예정에 있다고 했다. 둘째 중학교 3학년은 피쳐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큰 아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일반 휴대전화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스마트폰으로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생기고 자신의 학습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하게는 친구들과의 스마트폰 대화로 인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 수가 없다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그 대화들에 답장을 하지 않으려니 웬지 친구들 사이에 소외감으로 느낄 것 같고 모두 대응하자니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자신의 눈에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아야 무엇인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학교 친구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스마트폰을 게임용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들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바로 앞에 있어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해요. 부모님들한테 매일 전화기 뺏기고, ㅎㅎ 핸드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요. 제가 이제 공부할 시기잖아요. 스마트폰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지금 저한테는 당분간 일반전화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제 주위 친구들도 많이 그런 추세예요. 친구들이 다들 학원가서 공부하느라 카카오톡으로 긴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룹4, 아들 고2)

최근 인터넷 뉴스에 초, 중, 고 학생들이 하루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5시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16.8%, 1~3시간 사용한다는 학생은 39.8%였으며 1시간미만 사용자는 32.1%였다. 심지어 응답한 학생들 중에 11.5%는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이 넘는다는 응답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초, 중, 고생의 28%는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씩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부모와 자녀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재와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의욕을 떨어치면 그로인한 부모님들의 성적 하락에 관한 우려에 갈등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그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의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과 화해는 현실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단, 연구 결과 분명한 것은 스마트폰의 등장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빚어내는 요인은 분명 하지만 부모와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로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또 다른 대화의 통로라는 것이다. 결국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스마트폰의 환경에서 더 큰 과제라 볼 수 있겠다.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갈등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와 반대로 현대인들의 면대면의 대화가 부족한 현실에서 스마트폰은 어떤 형태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화의 도구로 쓰이는지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보이는 문제점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가족들을 심층 인터뷰 한 결과 스마트폰이 가족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및 특성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은 자녀는 가족 내 개별화를 보였다. 개별화의 형태는 각 구성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자신의 방에 들어가 친구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게임을 즐기는 형태를 보였다. 여기에서 여학생과 같은 경우는 주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한다거나 음악을 듣거나 지인들이 올려놓은 카카오톡스토리를 보면서 댓글 등을 남기는 행위를 보였고 남학생과 경우는 대부분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개별화가 지속됨으로써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일부 자녀들은 스마트폰 중독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중독현상으로 인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가족 간의 대화단절 현상을 보이는 것과 부모와의 갈등, 스마트폰의 과다이용으로 인한 수면부족, 그로인한 학업 성적 부진, 심지어 일부 자녀는 난폭함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각 이론에서 다룬 기존의 이정규(2011) 연구 결과에서 언급되었던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다보면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온라인에서 타인과

의 소통에 집중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가족과 지인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면대면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주변 환경에 무관심한 사회구성원이 증가하여 개인주의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희준, 2011)라는 개념들과 맥을 같이 한다.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다. 황용석, 박남수(2011)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 유형은 크게 부적응, 이탈, 강박, 집착, 금단 요인으로 나타났다.’라는 이론과 연결되고 있고,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으며,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2010년 발표된 유혜정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해경(2009)의 10대 연령집단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장혜진(2002)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충동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김양중(2012), 김영주(2013)의 학술적인 분야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 등의 논의와도 연결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의 의존도는 다소 높지만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역시 스마트폰 과다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었다. 우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폰은 자녀의 위치정보 서비스나 자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안한 사회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수단인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 얼굴 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짧은 대화들이 이들에게는 소중한 매체로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기능적,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탈맥락화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미세하면서도 다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뉴미디어의 기능(Ling & Yttri, 2002; Ling & Yttri, 2003)은 관리를 통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직접 대화에서 서로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감안해 직접 커뮤니케이션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은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첫 번째 연구 결과와 달리 스마트폰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로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면 두 번째 그룹과 같은 경우는 ‘다른 매체 중독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중독은 휴대전화 이용자의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우형진, 2007).’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조일주(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중독이 모든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중독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학업 성취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본다면 두 번째 그룹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와도 같은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모바일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친구들과 가족관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특히 뉴스나 드라마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다가거나 사회적 이슈를 SNS를 통해 볼 수 있고, SNS 참여방식을 부모에게 알려주면서 그 기능들을 공유하면서 부모와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가족 간 대화가 더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김영선, 김래선, 조은희, 이현숙, 2013)와도 일치했다. 스마트폰 이용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은 기존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문화라고 인식할 수 있겠다.

셋째,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거의 없는 그룹의 결과이다.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많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본 연구에서 다뤘다. 이 그룹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단절이나 갈등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개인화, 탈공간화, 성적부진, 건강악화 등의 연결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만 가족의 불화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일상생활, 가족관계 형성에서 일어나는 문제라 볼 수 있겠다.

2. 결 론

본 연구는 가족커뮤니케이션에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가족커뮤니케이션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녀들의 통제되지 않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의해 부모와 자녀는 대화의 단절과 소통, 갈등과 화해의 반복을 거치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가 가족 관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Christensen, 2009; Devitt & Roker, 2009; Morrison & Krugman, 2001)과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소통 과정에서 스마트폰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매개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엮어줄 소통의 매개이기도 하다. 단절은 자녀들의 부재, 스마트폰 중독, 소외 등으로 이어지는 매체로 본다면 반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은 정서적 교류의 매체로도 가능한 매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단절의 매개가 되는 스마트폰은 지극히 개인적인 매체이면서 더불어 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 기기는 부모와 자녀에게 소통과 단절의 매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마트폰 기기에 의한 대화단절이 과연 최근 디지털 미디어 발달로 인한 사회현상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이 되기 전 우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라는 아날로그 미디어를 접하고 자라 왔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도 여전히 부모와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제한과 밤새워 듣고 싶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의 중재로 인한 갈등은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작게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크게는 디지털 미디어라는 매체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금의 스마트폰과 같은 갈등과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 소통에서 대화의 단절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매체가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다. 스마트폰이 단절과 소통, 갈등과 화해의 도구로 적용되는 방식은 개인화, 탈공간성, 탈시간성,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각각의 개별 미디어가 지니는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개별 디지털 미디어인 스마트폰을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형태를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고, 일상 속에서 소통의 도구로써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갈등과 단절의 상황은 단순 자녀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부모들의 중재 등의 갈등 요소들은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간의 관계형성에서 완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 디지털 미디어인 스마트폰은 과다이용에서부터 스마트폰 중독 우려까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모와 자녀 간 대화단절 등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의 발달은 가족 구성원이 면대면 대화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스마트폰 활용에 있어서 의존도가 중독 현상에만 미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에서 좀 더 정서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부족한 면대면의 시간을 정서적 교류를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가족 간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과 예방을 위해 정부 당국과 학교 그리고 부모들의 충분한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적절한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상담체계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는 특히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부모들의 외적 통제보다는 자녀들의 내적 통제력을 길러주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인 대화로 스마트폰 사용을 긍정적이고 유익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 논의와 해결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스마트폰의 발달이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원 중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졌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

구의 결과들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미진한 상태여서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 위주로 참고하고 그에 관한 자료들 위주로 인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와 연관 지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연구 대상이 연구자의 지인 위주로 특정 가족 그룹으로 선정하다 보니 대부분의 아버지는 낮은 귀가로 인해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득이 어머니 위주의 인터뷰가 집중되어 되었다. 또한 민감한 사춘기의 자녀들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서 많은 자료들이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와의 관계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과 화해 등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역적 특성과 본인의 지인을 위주로 조사하다보니 일반적인 학부모의 대상이 아닌 특정한 학부모 대상으로 인터뷰가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를 디지털 기기 중 스마트폰으로 축소했다는 점, 조사 대상을 소수 특정 가족의 부모와 청소년에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초로 하여 향후 어머니 위주의 인터뷰가 아닌 가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자녀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부 간의 갈등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포괄적인 연구대상과 연구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백영균, 설양환(1997). 인터넷과 교육. 서울 : 양서원.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여행(2013),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한나래.

2.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3. 학술지 논문

강희양,손정락(2009). 청소년 휴대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Vol. 4, No.3.

고윤전,이형일(2010). 아이폰 초기 사용자 동행관찰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28(10), 111~120.

공영일(2010). 스마트폰의 함의와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22권 제4호, 1-22.

구현영(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9 No. 4

권영길,이영선(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인터넷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No. 17

금희조,조재호(2010).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격차, 그리고 정치참여 : 소셜미디어 효과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348-371.

김대근,태지호(2010). 스마트폰 이용자의 매개 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통권 제19호, 373-394.

김리리,이선정,신호식(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가족가정과학지』, 20(4), 187-203.

김명혜(2005). 이동전화를 통한 어머니 노릇의 재생산. 『한국언론학보』

김선남,김현옥(2004).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4호, 88-116.

김성국외(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 - 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2), 389-415

김양중(2012). 모바일 환경에서 P2P 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한 에너지 기반 피어 선택 방안, 『정보과학회논문지』, 정보통신, Vol.39 no.6.

김영주(2013). 스마트폰을 사용한 U-헬스케어 모니터링과 보고,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류미숙,권미경(2011). 휴대폰 중독구과 비중독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 비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Vol. 14, No.2

박부진(2000). 인터넷의 생활화와 가족. 한국가족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박소라(2005).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4호 168~224.

방희정,조아미(2003). 「가족 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6권 1호.

배재권,정화민(2008). 스마트폰의 기능적 속성이 채택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4호, 337-362.

배진아,조연하(2010). 「디지털 미디어와 가족 커뮤니케이션: 모자간 소통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7권 1호.

성운숙(2000). 인터넷시대의 자녀양육방식과 부모자녀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1), 105~120.

- 우형진(2007). 휴대폰 이용자의 자아성향이 휴대폰 중독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력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2호, 391-427.
- 유태열,장혜경(2008). <디지털시대의 한국 가족과 가족생활>, KT경영연구소 미래사회연구센터, 75.
- 이수영(2003). 「이동전화 이용에 관한 연구: 음성통화 서비스와 문자서비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5호, 87~114.
- 이수진,홍세희,박중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장기추적조사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은미(1995). 텔레비전 시청과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연구. 『한국언론학보』, 34, 171~190.
- 이영선,김래선,조은희,이현숙(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연구
-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2000).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 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해경(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133-157.
- 이해경(2009).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예측 변인들 : 20, 30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호, 117-153.
- 이혜인,배영(2011).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이용정보가 사회자본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21, 35-71.
- 임소혜,조연아(2011). 부모와 또래 집단의 게임 이용 중재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권 4호, 173-218.
- 장성화,오은정(2009).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과 우울, 불안,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수상해양교육연구』, 제21권 제2호, 259-268.
- 조윤경,김영석(2009). 청소년의 TV.인터넷 이용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가족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디어 능력의 중재효과 『한국방송학보』, 23권 5호, 380-417.

- 조일주(2009).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 교육연구』, 제9권 제1호, 1-20.
- 최이정(2005).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부모의 미디어 폭력 중재, 가정내 폭력 경험 이 TV 폭력에 대한 어린이의 도덕적 해석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방송학보』, 19권 2호, 47-84.
- 최현석,이현경,하정철(2012).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K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3 No.5.
- 한주리,허경호(2004). 『휴대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226-247.
- 황용석,박남수(2011).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 요인과 중독예방에 있어 부모. 교사의 역할 연구.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309-348.
- 황경혜,유양숙,조옥희(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10호.
- 황주성,이재현,이나경(2010). 모바일 인터넷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 스마트폰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2010권7호.
- 황하성(2009). 「모바일 이용과 부부관계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16권 1호 157~177.
- 황하성,손승혜,최윤정(2011).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Vol.25 No.2

4. 학위 논문

- 강나리(2012).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비서의 업무 및 개인생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주(201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발달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산업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소영(2010). 개인특성과 스마트폰의 혁신서비스 특성이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2010). 휴대전화 과다사용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05). 중,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학교 적응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연(2013). 초등학생의 휴대폰 중독, 학교생활 적응,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진(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경(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석사학위논문.
- 최원석(2010). 스마트폰 기능적 속성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임(2009).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5. 국외문헌

- Barnes, H.L., &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Chaffee S. H., McLeod, J.M., & Wackman, D.B.(1966). *Family communicat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Iowa City, IA
- Ling, R. & Yttri, B. Nobody sits at home and waits for the telephone to ring. Micro and Hyper-coordination through the use of the mobile telephone.

Morrison, Morrison, M. & Krugman, D. M. (2001). A Look at Mass and Computer Mediated Technologies: Understanding the Roles of Television and Computers in the Hom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1), 135~161.

Rakow, L, & Navarro, V.(1993). Remote Mothering and the Parallel Shift: Women Meet the Cellular Telephone.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0(2), 144~157.

6. 기타 자료

- 경기웹진, 김보연 기자, ‘스마트폰이 10대 자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zigirang&logNo=100179408275>
- 사이버폭력 위험수준, 윤리교육 강화 ‘절실’, OBS 뉴스/2014. 6.11 기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798>
- “카톡 왕따” 여고생 자살, 한겨레 뉴스/2012.8.17.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7498.html
- 세바시 347회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권장희 놀이미디언교육센터 소장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0’ 교육, 필요할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inabenny&logNo=20202847246>
- ‘국민어플’ 카카오톡 신화 가능케 한 3가지 성공비결 ;
<http://ggholic.tistory.com/6219>
- 용어설명 : 위키백과, 정보통신용어사전, 백과사전

<부록> 질문지

심층 인터뷰 질문지

- 스마트폰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연구 목적을 위해 현재 스마트폰으로 인해 귀하의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질문지를 우선 읽어봐 주시고 귀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후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해주신 내용은 순수 본인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며, 귀하의 답변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2014년 1월

조사자 : 김 정 화

※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난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현재 사는 곳은 어디신가요?
2. 귀하의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되십니까?
3. 구성원들의 각각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중독 현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1.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중재에 관한 질문

11-1. 본인을 포함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2. 본인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어떻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11-3. 관여를 하고 계시다면 왜 관여를 하십니까?

12. 중재에 대한 자녀의 반응

12-1. 스마트폰 중재행위를 자녀가 잘 따릅니까?

12-2. 부모님의 중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부모님이 자녀를 중재하자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2-4. 중재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한계는 무엇입니까?

13.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족의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4. 스마트폰으로 인해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5.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6.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본인과 자녀간의 대화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7. 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 마지막으로 귀하는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B S T R A C T

Smartphone Influence on Family Communication: Conflict between Parent and Child

by

Kim Jeong Hwa

Department of Media Arts and Cultural Contents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 Kim Young Yim



As studies associated with smartphones have increased, the main social issue being focused is smartphone addiction.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and use of smartphones in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terviews with ten families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smartphone is closely related to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ffected their life a lot. Although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ccurs repeatedly by smartphone, they used smartphone to solve conflict between them. The amount of face-to-face time is replaced by phones, text messaging, and mobile applications. The conflict between children who spends a lot of time alone at home and parents are sustained, but on the other hand, children who has much time of talking to face-to-face with the

parents spends a little time using smartphone. As a result, this study ascertains that the change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y smartphone is another communication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Therefore, we should try to figure out a solution to a conflict of smartphon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Keywords : Smartphone, family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 reconciliation, dialogue, communication breakdown.



학위논문 공개 동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은 귀하의 학위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떤 형태로든 국내·외 이용자에게 공개(열람 또는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위	석 사		졸업년도	2014년
전 공	영상문화콘텐츠학과			
학위논문 제 목	한글	스마트폰이 가족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중심으로 -		
	영문	Smartphone Influence on Family Communication: Conflict between Parent and Child		
동 의 여 부	1. 찬성(√) 2. 조건부 찬성() 3. 반대()			
조건 또는 사유				

2014 년 7 월 7 일

논문저자명 : 김 정 화 (서명 또는 날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